

이름 없는 도시

The Nameless City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Nameless City" (The Wolverine 1921
년 1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 Weird Tales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공해주신 텍스트가 "Public domain"이라는 문구뿐이라 번역할 원문이 없습니다. H.P. 러브크래프트의 「이름 없는 도시(The Nameless City)」 중 번역을 원하시는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설정해 주신 모든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도시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곳이 저주받은 곳임을 직감했다.

차디찬 사막의 달빛 아래, 도시는 죽은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저 거대한 유적 아래, 그 심연에는 대체 어떤 기이한 종족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

아라비아의 사막 저 멀리, 이름 없는 도시가 허물어진 채 침묵 속에 잠겨 있다. 셀 수 없이 흘러간 세월의 모래가 낮은 성벽을 거의 다 덮어버렸다. 멤피스의 첫 초석이 놓이기 전부터, 그리고 바빌론의 벽돌이 채 구워지기도 전부터 도시는 이미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가 한때 살아 숨 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이름을 붙여줄 만큼 오래된 전설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속삭임으로 전해지거나, 셰이크의 천막 안에서 할머니들이 중얼거리는 이야기로만 떠돌 뿐이다. 그 때문에 모든 부족은 이유도 모른 채 이 도시를 멀리한다. 미친 시인 압둘 알라즈레드가 그 불가해한 여행을 노래하기 전날 밤, 꿈속에서 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니, 기이한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 죽음조차 죽음을 맞이할지라.

아랍인들이 왜 그토록 이름 없는 도시를 피했는지,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 그 도시는 기이한 이야기 속에서만 전해질 뿐, 살아있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낙타를 끌고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황무지로 향했다.

오직 나만이 그곳을 보았다. 그래서 내 얼굴에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끔찍한 공포의 흔적이 새겨졌고,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나만이 이토록 처절하게 몸을 떨게 된 것이다.

끝없는 잠에 빠진 듯한 섬뜩한 정적 속에서 마주한 그 도시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 또한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도시를 찾아냈다는 승리감마저 잊어버렸다. 나는 낙타와 함께 멈춰 선 채, 그저 동이 트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사그라들 때까지, 그리고 그 잿빛이 금빛 테두리를 두른 장밋빛 광채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하늘은 맑았고 광활한 사막은 고요했으나, 어디선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대의 돌무더기 사이로 모래 폭풍이 일렁이는 것도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사막의 먼 지평선 너머로 타오르는 태양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흩어지는 작은 모래 폭풍 사이로 태양이 비쳤다. 열병에 시달리던 나는, 마치 멍논의 기둥이 나 일장 기슭에서 태양을 맞이하듯, 저 먼 심연으로부터 음악적인 금속음이 울려 퍼지며 불타는 태양을 환영하는 환상을 보았다.

낙타를 몰아 그 말 없는 돌의 땅을 향해 천천히 모래 위를 나아가는 동안, 귀에는 이명이 울렸고 상상력은 들끓었다. 그곳은 이집트나 메로에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오래된 곳이었다. 살아있는 인간 중 오직 나만이 목격한 그곳이었다.

형체 없는 집들과 궁전의 기초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으나, 이 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오래전 이곳에 거주했던 이들이 정말 인간이었는지를 증명할 조각이나 비문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장소가 품은 고대의 기운은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이 도시가 정말로 인류의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할 어떤 흔적이나 문양이라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폐허 속에 남은 어떤 비레와 치수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여러 도구를 챙겨가서 무너진 건물들의 벽을 깊이 파헤쳐 보았으나, 진척은 더뎠고 의미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고 달이 떠오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은 새로운 공포를 몰고 왔다. 나는 차마 도시 안에 머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고대의 성벽 밖으로 나와 잠을 청하려 할 때, 달빛은 밝고 사막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내 뒤편에서 작은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모래바람은 회색빛 돌덩이 위를 훑으며 낮게 흐느끼듯 불어왔다.

새벽녘,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이명이 귓가를 울리는 가운데 나는 끔찍한 꿈의 향연에서 깨어났다. 이름 없는 도시 위를 맴도는 작은 모래폭풍의 마지막 바람 사이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주변 풍경은 고요하기만 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음산한 폐허 속으로 발을 들였다. 모래 아래 솟아오른 폐허의 형상은 마치 이불을 덮고 누

운 괴물처럼 보였다. 나는 잊힌 종족의 유물을 찾으려 다시 땅을 팠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정오에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는 벽면과 옛 거리, 그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가는 건물들의 윤곽을 따라 걷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도시가 과거에 실로 거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대체 무엇이 이 도시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나는 칼데아조차 기억해 내지 못할 만큼 아득한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인류가 태동하던 시절 므나르 땅에 서 있었던 저주받은 도시 사르나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회색 돌로 조각되었던 이브를 떠올렸다.

그러다 갑자기 모래 사이로 암반이 거칠게 솟아올라 낮은 절벽을 이룬 곳에 다다랐다. 나는 그곳에서 대홍수 이전 인류의 흔적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차 기쁨을 느꼈다. 절벽 면에는 작고 뭉툭한 암석 가옥이나 사원들의 외벽이 투박하게 깎여 있었다. 분명한 형체를 갖춘 그 건물들의 내부에는, 계산조차 불가능할 만큼 아득한 옛 시대의 비밀이 여전히 간직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비록 모래폭풍이 오랫동안 몰아친 탓에 건물 겉면에 새겨졌을지도 모를 조각들은 모두 깎여나가 사라진 뒤였지만 말이다.

내 주변에는 낮고 모래로 뒤덮인 어두운 구멍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나는 삽으로 구멍 하나를 파내어 길을 낸 뒤, 그 안에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을지 확인하러 횃불을 들고 기어 들어갔다. 내부로 들어서자

그 동굴은 분명히 신전이였다. 사막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훨씬 전, 이곳에 살며 신을 모셨던 종족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기묘할 정도로 낮게 만들어진 원시적인 제단과 기둥, 그리고 벽감들이 곳곳에 보였다. 조각상이나 벽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인위적인 수단으로 분명한 상징을 새겨 넣은 기이한 돌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이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 무릎을 펴고 앉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묘한 구조였다. 하지만 공간 자체가 워낙 넓어서, 햇불을 비추어도 한 번에 일부분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어두운 구석진 곳을 비출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어떤 제단과 돌들은 끔찍하고 역겹고도 설명할 수 없는, 잊힌 의식들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런 신전을 만들고 드나들었던 말인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다른 신전들에서는 또 무엇이 나올지 갈구하며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왔다.

밤이 찾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실체들은 공포보다 호기심을 더 강하게 자극했다. 처음 이름 없는 도시를 마주했을 때 나를 겁먹게 했던, 달빛이 길게 드리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황혼이 깔린 틈을 타 나는 또 다른 구멍을 찾아냈고, 새 햇불을 들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모호한 형상의 돌들과 상징들이 나타났으나, 앞서 보았던 신전만큼 뚜렷한 것은 없었다. 방의 높이는 비슷했지만 폭은 훨씬 좁았고, 방 끝은 정체 모를 신전들이 뻗뻗하게 들어찬 아주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내가 그 신전들을 살피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밖

에서 바람 소리와 낙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짐승을 겁먹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원시적인 유적 위로 달빛이 선명하게 내리쬘고 있었다. 달빛은 내 앞쪽 절벽 어딘가에서 강하게 불어오다 점차 잦아드는 바람을 타고, 자욱하게 일어난 모래 구름을 밝게 비추었다. 나는 낙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차갑고 모래 섞인 바람임을 알았고, 막 낙타를 더 나은 은신처로 데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절벽 꼭대기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고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일출과 일몰 때 보거나 들었던 갑작스러운 국지풍을 즉시 떠올리며, 이것이 그저 흔한 현상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이 바람이 동굴로 이어지는 바위 틈새에서 불어오는 것이라 판단했다. 요동치는 모래를 유심히 살피며 그 근원을 추적했다. 곧 모래가 불어오는 곳이 내 남쪽 멀리,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진 어느 신전의 검은 구멍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숨을 막히게 하는 모래 구름을 헤치며 그 신전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전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입구에는 굳어버린 모래가 다른 곳보다 훨씬 적게 쌓여 있었다.

만약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의 무시무시한 기세가 내 횃불을 꺼뜨릴 뻔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장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바람은 어두운 문틈 사이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다. 바람은 모래를 휘저으며 기괴한 신음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기묘한 유적 사이로 퍼져 나갔다. 곧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고 모래도 점점 가라앉더니, 마침내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도시의 유령 같은 돌무더기 사이로 무언가 존재가 배회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달을 바라보자, 달빛은 마치 요동치는 물결에 비친 듯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경이로움에 대한 갈증을 억누를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바람이 완전히 잦아들자마자, 바람이 뿔어져 나왔던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밖에서 짐작했던 대로, 이 신전은 이전에 방문했던 그 어떤 곳보다도 거대했다. 게다가 어딘가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일 것이라 생각했다. 신전 내부에서는 몸을 곧게 펴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었으나, 돌과 제단들은 다른 신전들처럼 낮게 자리 잡고 있었다.

벽면과 천장에서는 그 고대 종족이 남긴 회화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기묘하게 말려 올라간 형태의 채색들은 거의 빛이 바랬거나 부스러져 내린 상태였다. 그러다 제단 두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고조되는 흥분을 억누르며 정교하게 조각된 곡선 문양의 미로를 목격했다.

햇불을 높이 들어 올리자, 천장의 형태가 자연물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사 시대의 석공들이 처음에 무엇을 깎아 만들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그들의 공학적 기술은 분명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을 것이다.

그때 기괴한 불꽃이 번쩍이며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보여주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왔던 그 머나먼 심연으로 통하는 입구였다. 단단한 암벽을 깎아 만든 작고 분명한 인공 문을 발견한 순간, 나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나는 횡불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두운 터널 안에는 낮게 아치형을 이룬 천장이 있었고, 그 아래로 작고 수많은 계단이 가파른 경사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기에, 평생 꿈속에서 그 계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을 계단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기 위한 발디딤돌이라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광기 어린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아라비아 예언자들의 경고와 말들이 사막을 건너 들려오는 듯했다. 인간이 아는 땅에서, 인간이 감히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도시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을 뿐, 곧 문을 지나 가파른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사다리를 타듯, 발을 먼저 내밀면서.

약물에 취하거나 섬망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나처럼 이토록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좁은 통로는 마치 저주받은 우물처럼 끝도 없이 아래로 이어졌다. 머리 위로 치켜든 횡불로는 내가 기어 내려가는 저 미지의 심연을 다 비출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 감각마저 무뎠고 시계를 확인하는 것도 잊었으나, 내가 지나온 거리를 생각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길은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경사가 급해지기도 했다. 한 번은 길고 낮은 평지 통로가 나타났는데, 그곳은 무릎을 꿇을 공간조차 없을 만큼 낮았다. 나는 횡불을 팔을 뻗어 머리 너머로 높이 든 채, 바위투성이 바

자, 유리처럼 매끄러운 칠흑빛 측면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바다가 그 끈적한 해안 위로 내뿜은 검은 타르를 갓 칠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발바닥에 다시 평평한 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을 때, 시간의 흐름은 이미 완전히 끊겨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머리 위로 아득히 떨어진 두 개의 작은 신전 방들보다 약간 높은 곳이었다. 똑바로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무릎을 세우고 앉을 수는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무작위로 기어 다녔다. 곧 이곳이 좁은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로 벽면에는 유리로 된 앞면을 가진 나무 진열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원시적이고 심연 같은 공간에서 매끄러운 나무와 유리의 감촉이 느껴지자,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몰라 몸서리쳤다. 진열장들은 통로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 마치 관처럼 꺾어진 형상과 크기를 하고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진열장 두세 개를 옮겨 보려 했으나, 그것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공포스러웠을 법한 기괴한 자세로 몸을 낮춘 채 서둘러 나아갔다. 나는 가끔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주변을 더듬었다. 벽과 진열장들이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시각에 의존해 생각하는 데 너무나 익숙한 존재이기에, 나는 어둠조차 잊은 채 천장이 낮고 단조로운, 나무와 유리로 된 끝없는 복도를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다 찰나의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름과 동시에 나는 정말로 그 복도를 보게 되었다.

상상이 실재하는 시야로 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눈앞에서 서서히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정체를 모를 지하의 인광이 비추는 복도와 진열장들의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빛이 워낙 희미했기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디며 점점 강해지는 빛 속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상상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홀은 지상의 도시에서 보았던 조잡한 신전들과는 달랐다. 이곳은 가장 장엄하고 이국적인 예술이 집약된 기념비였다. 풍요롭고 생생하며, 대담할 정도로 환상적인 문양과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벽화의 선과 색채는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진열장은 기묘한 황금빛 나무로 만들어졌고, 앞면은 정교한 유리로 덮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혼란스러운 꿈조차 기괴함으로 압도하는, 미라가 된 생명체들이 담겨 있었다.

이 괴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들은 파충류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의 윤곽은 때로 악어를, 때로 물개를 연상시켰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박물학자나 고생물학자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크기는 작은 성인 남성과 비슷했고, 앞다리 끝에는 인간의 손과 손가락을 기묘하게 닮은, 섬세하고 유연해 보이는 발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머리였다. 그 머리의 윤곽은 알려진 모든 생물학적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도저히 무엇에 비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찰나의 순간 동안 내 머릿속에는 고양이, 불독, 신화 속의 사티로스,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유가 스쳐 지나갔다. 주신 유피테르조차 그토록 거대하고 툭 튀어나온 이마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뺨이 돌아 있고 코가 없으며 악어 같은 턱을 가진 그 모습은, 그 어떤 기존의 분류 체계로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한동안 저 미라들이 실존하는 생명체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인지 의구심을 품고 고민했다. 그러나 곧 저것들이 이름 없는 도시가 번성하던 시절에 살았던, 아주 먼 옛날의 종족임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기괴함의 정점은 바로 차림새였다. 미라들 대부분은 가장 값비싼 옷감으로 화려하게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금과 보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빛나는 금속 장신구들을 아낌없이 두르고 있었다.

벽면과 천장을 장식한 프레스코화 속 기괴한 문양들 중에서도, 이 기어 다니는 생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비중으로 보아 이 생물들은 분명 막대한 중요성을 지녔을 것이다. 화가는 독보적인 솜씨로 이들만의 세계를 그려 넣었다. 그 세계 속에는 이 생물들의 체구에 맞춘 도시와 정원이 정교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나는 그림에 담긴 이들의 역사가 어떤 은유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생물들을 숭배했던 인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름 없는 도시의 사람

들에게 이 생물들은, 로마인들에게 암늑대가 그러했듯, 혹은 인디언 부족들에게 토템 동물이 그러했듯 신성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나는 '이름 없는 도시'에 관한 경이로운 서사시를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프리카가 파도 속에서 솟아오르기 전, 온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해안 대도시의 이야기였다. 또한 바닷물이 물러나고 사막이 비옥한 계곡을 잠식해 들어올 때 그 도시가 겪어야 했던 투쟁의 기록이기도 했다.

나는 그 도시의 전쟁과 승리, 고난과 패배를 목격했다. 그리고 이후 사막에 맞서 벌인 처절한 사투를 보았다. 그곳의 수많은 백성은 기괴한 파충류의 형상으로 비유되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언자들이 말해주듯 또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 어떤 경이로운 방식으로 암석을 깎아 지하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생생하면서도 기묘했고,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내가 직접 목격했던 그 경악스러운 하강의 경험과 이 이야기 사이의 연결 고리 또한 명백했다. 나는 심지어 그 통로들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나아가자, 벽면에 그려진 서사시의 뒷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도시와 그 주변 계곡에서 천만 년 동안 머물러 온 종족이 떠나가는 모습이었다. 지구의 태고 시절, 유목민처럼 정착하여 태초의 암벽을 깎아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온 종족이었다. 그들

은 너무나 오랜 세월 몸을 의탁해 온 이곳을 떠나려 할 때, 영혼마저 움츠러드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듯했다.

빛이 충분히 밝아지자 나는 그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저 기이한 파충류들이 정체를 모를 인간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이름 없는 도시의 풍습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다.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문명은 문자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그 수준은 훨씬 후대에 나타난 이집트나 칼데아 문명보다도 높은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폭력, 전염병과 관련된 장면을 제외하면 죽음이나 장례 풍습을 묘사한 그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 이토록 말을 아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마치 불멸이라는 이상을 달콤한 환상처럼 키워온 것만 같았다.

통로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이하고 화려한 장면들이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버려진 채 무너져가는 이름 없는 도시의 모습과, 그 종족이 돌을 깎아 만들어낸 기묘하고 새로운 낙원의 모습이 교차하며 나타났다. 이 그림 속의 도시와 사막 계곡은 언제나 달빛 아래 놓여 있었다. 무너진 성벽 위로는 황금빛 광륜이 감돌았고, 화가는 과거의 찬란했던 완벽함을 유령처럼 아스라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게 묘사해 놓았다. 낙원의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했다. 그곳은 영원한 낮이 지속되는 숨겨진 세계로, 영

광스러운 도시들과 천상처럼 신비로운 언덕과 계곡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예술적 기교가 무너져 내리는 징후를 목격했다. 그림들은 이전의 그 어떤 기괴한 장면들보다도 숨씨가 서툴렀고, 훨씬 더 기이했다. 그 그림들은 고대 종족이 서서히 타락해가는 과정과, 사막에 밀려난 그들이 외부 세계를 향해 품게 된 점증하는 적개심을 기록하고 있는 듯했다.

신성한 파충류의 형상으로 늘 묘사되던 사람들의 모습은 점차 야위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달빛 아래 폐허 위를 떠도는 그들의 영혼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거대해졌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파충류의 모습으로 그려진 수척한 사제들은, 하늘과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든 존재를 저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의 그 끔찍한 장면에는, 아마도 기둥의 도시라 불리는 고대 이렘의 개척자였을 법한 원시적인 모습의 남자가 더 오래된 종족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름 없는 도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장소를 지나자 회색 벽과 천장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벽면에 새겨진 역사의 파노라마를 눈으로 쫓다 보니, 어느덧 천장이 낮은 홀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모든 인광이 흘러나오는 문 하나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 너머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한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그 너머에는 더 밝고 화려한 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균일한 빛의 공허만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햇빛에 반짝이는 안개 바다를 내려다볼 때 마주할 법한 그런 광경이었다. 내 뒤에는 몸을 제대로 세울 수 없을 만큼 좁고 답답한 통로가 놓여 있었고, 내 앞에는 지하의 무한한 광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통로 아래 심연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내가 지나온 검은 통로의 그것들처럼 작고 수많은 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몇 걸음 내려가자, 피어오르는 빛나는 증기가 그 아래를 모두 가려버렸다. 통로 왼쪽 벽면에는 거대한 황동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두꺼운 이 문에는 기괴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만약 문을 닫는다면 암석으로 된 지하 회랑과 통로로부터 빛이 가득한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듯했다. 나는 계단을 내려다보았으나, 차마 발을 뗄 엄두는 내지 못했다. 열려 있는 황동 문을 만져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죽음과도 같은 탈진조차 몰아낼 수 없는, 거대한 사색들이 불길처럼 머릿속을 휘저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기자, 벽화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수많은 장면이 새롭고도 끔찍한 의미를 띠며 되살아났다. 그 장면들은 이름 없는 도시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모습과 도시를 둘러싼 계곡의 식생, 그리고 그곳의 상인들이 교역하던 먼 땅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특히 기어 다니는 생물들을 묘사한 우화가 모든 장면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의아했다. 이토록 중요한 역사를 기록

한 그림에서 왜 그토록 기어 다니는 형상이 강조되었는지 의문이 생겼다. 벽화 속 이름 없는 도시는 파충류의 체격에 맞춘 듯한 비율로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도시의 실제 크기와 장엄함이 과연 어떠했을지 궁금해하며, 유적에서 보았던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을 잠시 되짚어 보았다.

태초의 신전들이 유독 낮게 지어진 점과 지하 통로의 구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곳에서 숭배되는 파충류 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깎아 만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비록 그 구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기어 다닐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이곳의 종교 의식 자체가 그 생물들을 흉내 내어 기어 다니는 형식을 포함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종교적 이론을 가져온다 해도, 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강 통로가 왜 신전만큼이나 낮아야 했는지, 아니 무릎조차 꿇을 수 없을 만큼 더 낮아야 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 끔찍하게 미라가 된 생물들의 형상이 바로 곁에 있는 듯 느껴지자, 공포가 다시금 심장을 두드렸다. 정신적인 연상은 참으로 기묘한 법이다. 마지막 그림에서 갈가리 찢긴 불쌍한 원시인을 제외하면, 이 수많은 태고의 유물과 상징들 사이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는 나쁜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기이하고 떠돌이 같은 나의 삶이 늘 그러했듯, 경이로움은 곧 공포를 몰아냈다. 빛나는 심연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위대한 탐험가라면 마땅히 도전할 만한 과제로 다가왔

다. 저 기묘하게 작은 계단들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 신비로운 이계가 펼쳐져 있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치 않았다. 나는 채색된 복도가 다 보여주지 못한, 인류의 흔적을 그곳에서 발견하기를 고대했다. 벽화에는 이 지하 세계에 존재하는 믿기 힘든 도시와 계곡들이 그려져 있었고, 내 상상력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풍요롭고 거대한 유적들을 향해 달려갔다.

사실 나의 공포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향해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수 마일 아래, 죽은 파충류의 사체와 태고의 벽화가 가득한 비좁은 복도에 갇혀 있다는 물리적 공포조차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었다. 기괴한 빛과 안개가 자욱한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한 채 느끼는 그 공포보다, 이 풍경과 그 영혼에 깃든 심연 같은 고대성이 주는 치명적인 전율이 훨씬 더 컸다.

이름 없는 도시의 원시적인 돌들과 암벽을 깎아 만든 신전들은, 그 거대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세월을 품은 채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는 듯했다. 벽화에 그려진 경이로운 지도들은 인류가 잊어버린 대양과 대륙들을 보여주었고, 그저 군데군데 희미하게 익숙한 윤곽만이 보일 뿐이었다.

벽화가 그려진 이후부터, 죽음을 혐오하던 그 종족이 원망 섞인 최후를 맞이하며 쇠락하기까지 지질학적 시대가 흐르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이 동굴들과 빛나는 저 너머의 영역에는 생명이 넘쳐흘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생한 유물들만이 남은 이곳에 홀로 남겨졌다. 이 유물들이 그 수많은 세

월 동안 얼마나 고요하고도 황량하게 자리를 지켜왔을지를 생각하면, 나는 몸서리치게 떨렸다.

그 순간, 차가운 달빛 아래 그 끔찍한 계곡과 이름 없는 도시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나를 덮쳐왔던 그 날카로운 공포가 다시 한번 휘몰아쳤다.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나는 미친 듯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검은 복도를 따라,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터널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시선을 던졌다. 밤의 이름 없는 도시를 피하게 만들었던 그 기분, 설명할 길 없이 강렬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이 다시금 나를 잠식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충격이 나를 덮쳤다. 무덤처럼 고요하던 이 심연의 정적을 깨뜨린, 분명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저주받은 영혼들의 무리가 내는 울부짖음처럼 낮고 깊은 신음 소리였다. 소리는 내가 응시하던 방향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순식간에 커지더니 낮은 통로 전체에 무시무시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터널과 머리 위의 도시로부터 차가운 외풍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 공기를 들이마시자 안정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심연의 입구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던 돌풍이 즉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바람 중 한 차례가 숨겨진 터널을 내게 드러내 주기도 했다. 시계를 보니 곧 해가 뜰 시간이었다. 나는 저녁에 바람이 들이닥쳤던 것처럼, 이제 다시 동굴 속 안식처를 향해 쏟아져 내려갈 강풍에 맞서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

는 자연 현상을 마주할 때면 대개 찾아들기 마련이기에, 내 두려움도 다시금 찾아들었다.

비명과 신음이 섞인 밤바람이 지구 내부의 그 거대한 구렁 속으로 더욱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나는 몸이 인광이 감도는 심연 너머로 통째로 쏠려 내려갈까 두려워, 다시 바닥에 엎드린 채 허망하게 바닥을 움켜쥐었다. 이런 격렬한 폭풍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내 몸이 실제로 심연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공포와 상상력이 뒤섞인 수천 가지의 새로운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몰아치는 돌풍의 불길한 기운은 건잡을 수 없는 망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공포스러운 복도에 남겨진 유일한 인간의 형상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름 없는 종족에게 갈가리 찢겨 죽은 그 사내 말이다. 소용돌이치는 조류가 악마처럼 활궤어 대는 그 움직임 속에는, 스스로를 마음껏 휘두를 수 없기에 더욱 강렬해진 복수심 섞인 분노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정신없이 비명을 질렀던 것 같다.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내가 비명을 질렀다 하더라도, 그 울부짖는 바람의 망령들이 만들어내는 지옥 같은 소음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살의를 품은 채 몰아치는 보이지 않는 급류에 맞서 기어 올라가려 애썼지만, 그저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나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 느릿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힘에 밀려 나갔다. 결국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모양이다. 나는 '이름 없는 도시'를 꿈꾸었던 미친 아라비아인,

압둘 알라즈레드가 남긴 그 설명할 수 없는 두 구절의 시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영겁의 세월 동안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며, 기이한 시대가 흐르면 죽음조차 죽을 수 있으리라.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오직 음울하고 침울한 사막의 신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사투와 몸부림을 견뎌냈는지, 혹은 아바돈이 어떻게 나를 다시 삶으로 인도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나는 망각이,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밤바람 속에서 이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몸서리쳐야만 한다. 그 존재는 괴물 같고, 비자연적이며, 거대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것이어서,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고요하고 저주스러운 새벽녘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다.

몰아치는 돌풍의 맹렬함은 지옥의 것이자 악마의 그것이었다고, 나는 이미 말했다. 그 바람에 실려 오는 목소리들은 황량한 영겁의 세월 속에 갇혀 있던 잔혹함을 머금은 채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이윽고 내 눈앞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이던 그 목소리들은, 요동치는 내 뇌리에 뒤편에서 명확한 형태를 갖추어 들리기 시작했다. 인간이 사는 빛나는 세상으로부터 수만 리 아래,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세월 속에 죽어버린 고대 유물들의 무덤 속에서, 낯선 언어를 내뿜는 악마들이 섬뜩하게 저주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렸다. 어두운 복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형체들이 심연의 빛나는 에테르를 배경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악몽처럼 몰려

드는 악마 떼였다.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 기괴한 무장을 갖춘 채 반투명하게 빛나는 그 악마들은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종족이었다. 바로 이름 없는 도시의 기어 다니는 파충류들이었다.

바람이 잦아들자, 나는 구울들이 득실거리는 지구의 심연 속 어둠으로 곤두박질쳤다. 마지막 괴물이 지나가자마자 거대한 청동 문이 쿵 하고 닫혔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그 잔향은 마치 나일강 기슭의 멤논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듯, 아득히 먼 세상까지 뻗어 나가며 울려 퍼졌다.